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12월 3~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12월 경제 동향

-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회 출범
 - 베트남 IFC는 호치민과 다낭에 거점을 둔 '1센터, 2목적지' 모델로 모두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예정
- 베트남, 개인소득세 5단계 최고 세율 35% 누진체계 확정
 - 개정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과표 구간은 5개 구간, 과세 구간은 확대된 새로운 누진 체계가 적용
 -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월 VND 1,000만 이하 5%, 2구간 월 VND 1,000만~3,000만 10%, 3구간 월 VND 3,000만~6,000만 20%, 4구간 VND 6,000만~1억 30%, 5구간 VND 1억 초과 35%
- 베트남, 사상 최초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
 - 관광산업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베트남은 지난 '22년 3월 15일 국제 관광 완전 재개방 이후 '23년 1,260만 명, '24년 1,7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등 강력한 관광 회복세를 보인 바 있음
 - 이러한 강력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25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에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베트남 4대 국영은행, 예금금리 인상
 - 비엣틴은행 · 비엣콤은행 · BIDV · 아그리은행은 연말 대출 수요 급증에 예금 확보를 위해 1년 만에 금리 조정
 - 이번 금리 조정으로 국영상업은행들의 만기 12개월 이상 장기 상품의 예금금리는 '23년 말 금리와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단기 금리는 여전히 약 0.5%포인트 낮은 수준 유지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공무직법 개정으로 공무직근로자 겸직 공식 허용
 - 현행법상 공무직근로자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투자하거나 설립 또는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하고, 경영 및 운영 참여 가능
- 베트남, 지질광물법 개정으로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
 - 개정법에 따르면 희토류는 특수전략광물로 분류돼 원광 형태의 수출은 금지되며, 희토류 광물의 탐사·채굴·가공은 국가가 허가한 기관·기업에 한해 엄격한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또한 희토류 원소에 대한 연구·기술 이전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해당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우선시할 예정
 - 베트남 정부는 희토류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방위기술, 전기차 배터리, 드론, 군용 로봇,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에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할 자원으로 인식하고, 하이테크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부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희토류가 국방안보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조국항전 79주년 기념 대규모 착·준공식 개최
 - 베트남 건설부는 12월 19일 조국 저항의 날 전국 34개 성·시에서 진행될 주요 사업 동시 착·준공식 개최
 - 주요 착공 사업으로는 하노이 올림픽스포츠도시, 홍강 경관 대로,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1단계 사업, 용펫 특수강·철로 생산 프로젝트, 푸꾸옥특구 도시철도 1단계 사업, 호치민시 청소년문화 센터 등이 포함
 - 준공 및 개통 사업은 북남고속도로 동부 구간(ණ터-허우장-까마우), 후에국제종합병원, 통탄국제공항 1단계 사업의 첫 비행 등

③ 베트남 기타 동향

- 호치민시, 까이멥하 자유무역지대 설립 추진
 - 호치민시가 까이멥-티바이(Cai Mep-Thi Vai) 심해항과 연계된 약 3,800ha 규모의 까이멥하(Cai Mep Ha) 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추진
 - 까이멥하 자유무역지대는 련프억동(옛 바리아붕따우성)에 주요 3개 특화구역으로 나눠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첫 번째 구역은 1,735ha 규모 교통 허브로, 이곳에는 기존 항만 시스템, 까이멥하 컨테이너 터미널(상하역), 내륙 수로 항만·터미널, 비엔화-붕따우 철도와 연결된 까이멥 기차역 등이 포함
 - 두 번째 구역은 물류 및 산업창고 구역으로 까이멥 산업단지 남부 지역과 까이멥하 물류센터를 포함해 총 1,178ha이며, 세 번째는 850ha 규모의 첨단 산업, 도시 및 서비스 지역으로 이곳은 녹지 조성 및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를 중점을 둔 계획 지역 포함
 - 호치민시는 까이멥하 자유무역지대 외 견저와 안빈, 바우방 지역에 심해항 및 철도와 연결된 3곳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한 바 있음
- 베트남, 호치민-미투언 고속도로 확장사업 착공
 - 베트남 호치민시와 서부지역을 잇는 주요 구간 중 하나인 호치민-쭝르엉-미투언 고속도로의 확장 사업 12월 19일 착공
 - 총 사업비는 VND 36조(USD 13.7억)으로 베트남에서 민관협력사업(PPP) BOT(건설-운영-이전) 형태로 진행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
 - 현재 4차선인 총 연장 96.13km 구간에 대해 10~12차선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기존 교차로 8곳 개선 및 신규 교차로 2곳 신설,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요금소·휴게소 건설 예정
- 동나이성 연간 90억kWh 공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준공
 - 국영 베트남석유가스그룹(PVN)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파워(PV Power)는 동나이성과 함께 년짝LNG발전단지(3·4호기) 준공식을 개최
 - 완공까지 총 14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발전단지는 티바이-년짝 LNG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남부 지역의 핵심 전력 공급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해당 시설은 내년 1월부터 설계 용량 기준 연간 90억kWh 이상의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공급할 예정

- 이번 사업은 정부 보증 없이 국제 차관 USD 10억 이상을 확보해 진행된 베트남 최초의 발전 사업으로, 동사는 특히 LNG 발전 메커니즘 부재, 전력구매계약(PPA) 협상 난항, 환경 규제 준수 등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PV파워에 따르면 이번 발전단지는 10년간 보장구매율 65%, 연간 6,000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2026년 전력 생산량은 60억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단지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 연간 매출은 약 VND 25조(USD 9.5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 하이퐁항,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돌파
 - 하이퐁항은 베트남 북부 항만 중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200만 TEU 돌파
 - 하이퐁항만공사 대표는 올해 초 락후옌항 3·4부두 완공·운영에 따른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안 능력 향상으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항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며, 내년부터는 락후옌항과 남도선항에 추가 부두를 개발하고, 쭈언꺼우-락후옌 비관세 구역과 박당산업단지의 현대적 물류 시스템 확장과 디지털 기술·자동화·친환경 항만 솔루션 도입 촉진 등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 빈스피드, 독일 지멘스와 고속철도 개발 전략적 협약 체결
 -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빙그룹의 고속철도 전문 개발사인 빈스피드는 독일 지멘스AG(Siemens AG)의 고속철도 기술 및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지멘스모빌리티(Siemens Mobility GmbH)와 고속철도 분야 전략적 협력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지멘스모빌리티는 열차와 전력 공급 및 정보·신호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주요 철도 시스템의 설계와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며, 지멘스가 공급한 열차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총괄하고, 빈스피드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기술 이전을 제공할 계획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적용 계획

< 사업 개요 >

- (발 주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사업비) VND 57조 (USD 21.6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1km, 역사 11개(지하 10개), 차량기지 1개
- (추진계획) '26.1.15. 착공 예정 / '30. 완공 목표

- (주요사항) 벤탄역부터 북서부 관문인 옛 12군 탐르엉 차량기지까지 연결하는 호치민 메트로 2호선은 유럽 표준에 따른 최신 기술이 적용돼 기관사가 필요 없는 무인운전 시스템(GoA4 표준) 적용 예정
 - 호치민시 메트로 2호선은 당초 2010년 투자정책 승인 당시 완공 기한은 6년, 사업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와 독일재건은행(KfW), 유럽투자은행(EIB)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차관 형태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이 대출 조건과 검토 절차를 지속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금 확보 지연
 - '24년 9월 금융기관 3곳이 차관 제공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호치민시는 국회 동의를 얻어 재원을 ODA 차관에서 지방비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
 - 현재 사업 예정지 토지 수용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초 착공을 위한 기술 기반 시설 이전 작업 진행 중

② (베트남) 벤탄-껀저 고속철도 착공

< 사업 개요 >

- (발 주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사업비) VND 5.8조 (USD 2.2억)
- (사업내용) 총 연장 54km, 최고 속도 350km/h
- (추진계획) '25.12. 착공 / '28.4Q. 개통 목표

- (주요사항) 본 사업은 베트남 최초의 고속철도 사업으로, 사업자인 빈스피드는 독일 지멘스사와 전략적 협력 및 기술 이전 계약 체결